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급

전국 최초 2세~17세까지 90% 이상 아동 지원금 수령

순창군이 전국 최초로 '아동행복수당' 정책을 도입해 저출산 해소 및 인구 감소 대응책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떠오르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8일 군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2세에서 17세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씩 양육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2세에서 17세까지 전체 아동 2,571명 중 91.87%에 해당하는 2,362명이 매달 10만원씩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같은 아동행복수당 지급에 대해 순창 주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8세까지만 아동수당을 지원했던 정책과는 달리, 이번 순창형 아동행복수당 시행으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으로 파악된다.

2021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순창군의 인구증가율은 전국 최하위로 기록되며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감소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민선 8기 최영일 순창군수는 '아동행복수당'을 핵심 공약사업으로 정하고 올해 9월부터 2세에서 6세까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아동행복수당을 지급하고, 지난달에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과정을 거쳐 7세에서 17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단, 7세에서 17세까지의 아동은 두 자녀 이상, 자녀가 한명인 경우는 다문화 가정, 중위소득 80%(3인 가구 기준 354.7만원)이하인 가구의 아동에 한해서 지원된다.

특히, 최군수는 아동행복수당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기획재

정부 등 중앙부처와 정치권을 가리지 않고 발로 뛰며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출산율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사업임을 끊임없이 강조해 발로 뛴 결과가 이런 성과로 빛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아동행복수당 정책의 핵심 목표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출산 의욕 감소를 극복하고,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조성하여 나아가 인구 감소를 막는 데에 있다"며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당초 공약 목표인 40만원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군수는 "실제로, 국내의 유사한 정책이 시행된 결과를 보면, 아동수당을 지급한 캐나다, 독일, 강원도 등은 실제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며 "국내의 정책 사례를 참고하여 악용을 방지하고 정주인구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겨울나기 사랑의 땀감 나누기 행사' 가져

장애인·취약계층 22가구 전달

순창군이 지난 8일 겨울철 난방 문제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주민들을 위해 '겨울나기 사랑의 땀감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풍산면 소재 감식초 공장 부지에서 펼쳐진 이날 행사는 김정생 산림조합장, 군 산림부서, 산림조합 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특히 이날 행사는 기념식 등 요식행사는 갖지 않고 땀감 조제 및 적재작업 등 땀감을 나눠주기 위한 작업으로 대신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땀감은 순창군 산림조합에서

지역별체 사업지와 임도시설 사업장에서 모은 화목용 목재를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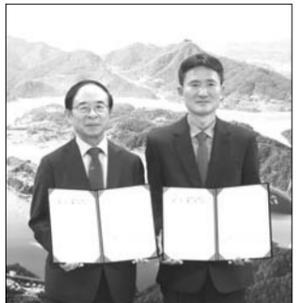
이번 사랑의 땀감 나누기 지원 대상자는 읍·면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홀로 사는 노인을 비롯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 중심으로 22가구를 선정했다. 이날 산림조합은 선정된 가구에 1.5톤씩 총 33톤의 겨울나기 땀감을 전달했으며, 주민편의를 위해 선정된 가정까지 직접 운반 전달해 추운 겨울철 온정을 나눴다.

김정생 조합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 겨울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고 싶은 마음에 마련한



행사가 지난 2007년 시작한 이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힘 없이 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구례지사, 농산물판매점 업무협약



임실군이 지난 8일 임실군청에서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구례지사(김석규)와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농산물판매점'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는 순천완주고속도로 오수휴게소 상행선(완주방향)에 도입하는 농산물판매점 도입과 운영에 따른 상호 협력 사항과 역할 분담 등 필요한 사항을 다뤘다.

임실군에서는 행복장터 도입과 운영을 담당하고,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구례지사는 행복장터 도입 공간

무상사용과 원활한 공사추진 협조 그리고 행복장터 활성화를 지원하게 된다. 행복장터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임실군과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구례지사 간 별도 세부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에 체결하는 협약에 따라 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내년 8월까지 임실군에서 생산되는 유제품과 건조농산물, 가공 농·특산물을 판매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옥정호 출렁다리와 봉어섬 생태공원 (사진=임실군청 제공)

임실군, 옥정호 겨울 정원 조성

크리스마스트리·산타·다양한 소품 등 크리스마스 경관 연출

임실군이 다가올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옥정호 출렁다리와 봉어섬 생태공원에 크리스마스 경관을 조성했다.

군은 옥정호 출렁다리와 봉어섬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겨울을 선사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출렁다리 야간조명과 어우러지는 경관을 연출했다.

봉어섬 생태공원은 동해 방지를 위한 벗집과 상록수를 이용하여 다양한 표정의 재밌는 산타를 꾸며 놓았으며,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과 어울리는 곰, 토끼, 사슴 등의 인형을 배치해 겨울철 봉어섬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봉어섬 곳곳에 식재된 붉은 열매를 지니고 있는 호랑가시나무와 산수유 나무는 겨울 정원에 걸맞게 자연스러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뽐내고 있다. 또한, 봉어섬 생태공원에는 겨울을 알리는 꽃배추와 백묘곡, 겨울랜지, 청보리 등 총 3만2,000여본이 식재됐다. 이들은 내한성이 강한 수종으로 삭막한 겨울 속에서도 활기 있고 아름답게 피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봉어섬을 방문한 한 관광객은 "봉어섬에 겨울에 볼거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방문해 보니 봉어섬의 겨울 정원이 호수와 어울려 정말 아름답다"며 "크리스마스 트리 및 나무를 이용해서 산타를 꾸며 놓으니 색다른 재미가 있어서 즐겁다"고 전했다.

먹을거리로는 봉어섬을 찾아온 수많은 관광객들이 아쉬워했던 봉어빵을 출시했다.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지역특화 먹거리 임실N치즈봉어빵을 개발, 옥정호 출렁다리 입구에 위치한 임실엔치즈하우스 옥정호점에서 판매한다.

임실N치즈봉어빵은 대한민국 원조 치즈 브랜드인 임실N치즈와 유기농 우리밀, 유기농 흑설탕, 버터 등 우리 몸에 좋은 재료들을 넣은 달콤짭짤한 맛과 바삭함이 으뜸이다.

임실에서 생산되는 모짜렐라치즈와 6개월 숙성된 고다치즈, 국내산 팔을 넣어 감칠맛과 고소한 맛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했다.

심 민 군수는 "추운 날씨에도 옥정호 수변과 어우러진 봉어섬 생태공원에서 연말연시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자원봉사자대회 한마음행사 성료

2023년 순창군 자원봉사자대회 기념식 및 한마음행사가 지난 8일 순창군 장애인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순창군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최영일 순창군수와 신정 이 순창군의회 의장을 비롯 지역 각급 사회단체장, 자원봉사단체장, 자원봉사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자 한마음 행사로 순창을 슬로건으로 진행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올해 군민 모두

가 행복한 순창 만들기 위해 봉사활동에 앞장선 대한적십자사 동계면 단위 봉사회 이영숙님 등 37명이 순창군수 표창장을 수여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기자센터장은 "순창군자원봉사자대회를 통해 침체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온기가 넘치는 살기좋은 순창,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꾸는 지역이 될 수 있게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도로 정비 우수상 수상

남원시는 전라북도가 주관한 2023년 도로 정비 시군 평가에서 14개 시군 중 완주군과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시상식은 12월 19일 2023년 전라북도 건설교통 공무원 워크숍에서 할 예정이다. 이 평가는 도로 기능 유지와 교통안전 및 도로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자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총계 도로 정비 실적과 추계 실적을 각각 40%와 60% 반영,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불법 도로 점용물 정비 등을 통한 도로 환경 유지 항목과 수요자 중심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시설 정비 항목을 계량화해 심사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보건소 '감염병 예방 우수기관' 선정

남원시 보건소는 '2023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및 국가 예방접종사업 분야에서 전라북도지사 표창 등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주민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을회관 방문교육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농업인, 공공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전광판, SNS, 농협 조합원 대상 안내 문자 전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감염병 예방에 노력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이 약 35%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국가 예방접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항상과 홍보에 기여한 유공으로 국가 예방접종 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결핵, 한센병 관리 분야에서 공무원 2명이 전라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